비전개발 10주차

21600685 조예성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가와 그 철학의 기저에 어떠한 방향이 있는 지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저 눈 앞에 있는 미시적인 일들을 처리하기에 바빠, 정작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을 갖지 않는다. 마치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은 쓸데 없는 상념에 젖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혹 사람들은 ‘현타’가 온다고 한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인식이 없다 문득 공허감이나 허무함이 들 때 자주 나타나는 문제 양상이다. 따라서 본인이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갖는지, 나아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는 매우 중요하다. 릭 워렌 목사가 말했듯 그것이 곧 우리 자체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교수님께서는 세계관에 있어서 네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만물의 기원),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악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구원의 문제)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종말의 문제) 에 대한 질문이다. 사실 평소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이러한 중대한 질문에 대해 잘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깊은 인생의 진리에 대한 통찰이다. 실제로 저러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사회, 자연 과학적, 철학적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도 있다. 과연, 이러한 인생 자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단순히 부모가 결혼하여 나를 낳았고 나는 태어난 김에 사는 그러한 존재인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는 어떠한 가치적인 것이 함축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세상을 사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왜 힘겨운 거고 왜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가에 대한 통찰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통찰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있어 근본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서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중요하다. 결국 시작에 대한 통찰이 중요한 이유는 끝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은 모두 답할 수가 있다. 그만큼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세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세계관이 있음에도 저런 질문에 대해 온전히 답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